2024 인문기술융합학부

연계·융합전공/자기설계융합전공 가이드북

KOOKMIN UNIVERSITY



KMU 국민대학교 KOOKMIN UNIVERSITY

KOOKMIN UNIVERSITY

School of Humanities,
Art & Technology

CONTENTS

03 인문기술융합학부

04 연계전공

05 융합전공

06 자기설계융합전공

08 연계융합전공 이수 수기

15 주요행사

인문기술융합학부란?

인문기술융합학부는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이종 학문 간 창조적 융합을 통해 더 큰 가치가 창출되는 **'곱하기 융합교육'**을 효과적으로 구현하여 인문·예술·기술 간 개방형·현장중심형 융합교육을 실현함으로써 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학부는 동일한 계열 내에서 2개 이상의 전공이 연계한 교육과정인 **'연계전공'**과 상이한 계열의 2개 이상의 전공이 연계한 교육과정인 **'융합전공'**을 관리·운영하며, 3차~6차학기 학생들이 다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 강화를 위하여 학생들 스스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자기설계융합전공'**을 운영함으로써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1 연계전공 Connection Major

연계전공이란? 01

동일 계열 내에서 2개 이상의 학과(전공) 교육과정이 결합하여 새로운 전공의 교육과정을 구성

연계전공명	참여학과	주관학과	학위	최저 이수 학점	부전공 최소 이수학점
중국통상전공	국제통상+중국정경	중국정경전공	중국통상학사	54	21
실내제품 디자인전공	공간디자인+공업디자인 +의상디자인+금속공예	공간디자인학과	미술학사	48	
도덕 · 윤리전공	교육+정치외교+한국역사 +공법학+교양	교육학과	문학사	51	
바이오기술전공	임산생명+식품영양 +응용화학부+바이오발효융합	임산생명공학과	이학사	48	
바이오헬스케어 · 식품연계전공	바이오발효융합+식품영양	바이오발효융합학과	이학사	48	
응용심리학전공	사회+미디어+교육 +응용심리학+경영학	교육학과	심리학사	42	
미디어 애널리틱스전공	AI빅데이터융합경영+미디어	AI빅데이터 융합경영학과	언론정보 경영학사	48	
미래자동차전공	미래자동차+자동차공학 +자동차IT융합+교양	미래자동차학부	공학사	36	
디지털마케팅전공	경영학+AI빅데이터융합경영 +경영정보	경영학전공	경영학사	48	
스마트카CT전공	전자공학부+미래자동차학부	전자공학부	공학사	42	
미래자동차 모빌리티연계전공	미래모빌리티학과+미래자동차학부	미래모빌리티학과	공학사	42	
소프트웨어 · 미래자동차연계전공	소프트웨어전공+미래자동차전공	소프트웨어전공	공학사	42	
유라시아국제통상학	러시아 · 유라시아+국제통상	러시아 · 유라시아학과	유라시아 국제통상학사	48	
데이터분석미래사회학	사회학+AI빅데이터융합경영	사회학과	데이터분석 미래사회학사	42	

연계전공 신청 방법 02

구분	다전공	부전공
신청시기 및 방법	매학기 4월, 10월 중 공지기간 (종합정보시스템 신청)	매학기 3월 초, 9월 초 공지기간 (종합정보시스템 신청)
신청자격	3차 ~ 6차학기 재학생	5차~8차학기 재학생
제1전공과 중복인정	최대 15학점	없음
변경 · 포기	7차학기 이상	
비고	포기 승인 후 부전공 신청 가능	

[이수예시] 중국통상전공(다전공 이수 시)



2 융합전공 Convergence Major

융합전공이란?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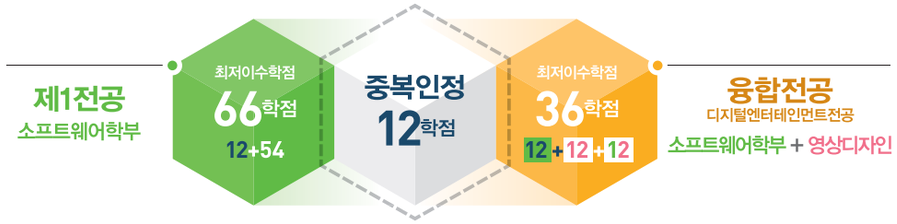
서로 다른 계열 2개 이상의 학과(전공) 교육과정이 결합하여 새로운 전공의 교육과정을 구성

융합전공명	참여학과	주관학과	학위	최저 이수 학점	부전공 최소 이수학점
해외건설융합전공	기계시스템공학+경영+재무금융 +건설시스템공학+건축시스템+교양	건설시스템전공	공학사	36	21
자동차소프트웨어 디자인융합전공	자동차공학+소프트웨어 +자동차 · 운송디자인	소프트웨어전공	공학사	36	
Entrepreneurship 융합전공	산학협력단+경영+소프트웨어 +공학인증교과목+교양	산학협력단	창업학사	36	
미래기술융합 디자인전공	조형대학+경영정보학부+신소재공학부	영상디자인학과	융합디자인 학사	36	
오픈소스거버넌스 융합전공	소프트웨어학부+행정+사법학	소프트웨어전공	공학사	36	
소프트웨어광고 융합전공	소프트웨어학부+광고홍보학	소프트웨어전공	공학사	36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전공	소프트웨어학부+경영정보	소프트웨어전공	공학사	36	
디지털 엔터테인먼트전공	소프트웨어학부+영상디자인	소프트웨어전공	공학사	36	
소프트웨어미디10어 융합전공	소프트웨어학부+미디어	소프트웨어전공	공학사	36	
바이오4차산업 거버넌스융합전공	바이오발효융합 +소프트웨어학부+행정	행정학과	이학사	36	
지식재산융합전공	경영+공업디자인 +사법학+융합전자공학	전자공학부	지식재산학사	36	
바이오헬스산업 융합전공	바이오발효융합+기계공학부 +인공지능학부+바이오헬스	바이오발효 융합학과	이학사	36	
양자보안 차세대통신전공	전자공학부+교양대 +정보보안암호수학+소프트웨어학부 +양자보안차세대통신	양자보안 차세대통신학부	공학사	36	
글로벌기후환경 융합전공	러시아 · 유라시아+일본학+교양대 +영어영문학부+AI빅데이터융합경영 +공업디자인+중국정경전공	글로벌기후환경 융합학부	융합학사	36	

연계전공 신청 방법 02

구분	다전공	부전공
신청시기 및 방법	매학기 4월, 10월 중 공지기간 (종합정보시스템 신청)	매학기 3월 초, 9월 초 공지기간 (종합정보시스템 신청)
신청자격	3차 ~ 6차학기 재학생	5차~8차학기 재학생
제1전공과 중복인정	최대 12학점	최대 6학점
변경 · 포기	7차학기 이상	
비고	포기 승인 후 부전공 신청 가능	

[이수예시] 디지털엔터테인먼트전공(다전공 이수 시)



3 자기설계융합전공 Self design Convergence maj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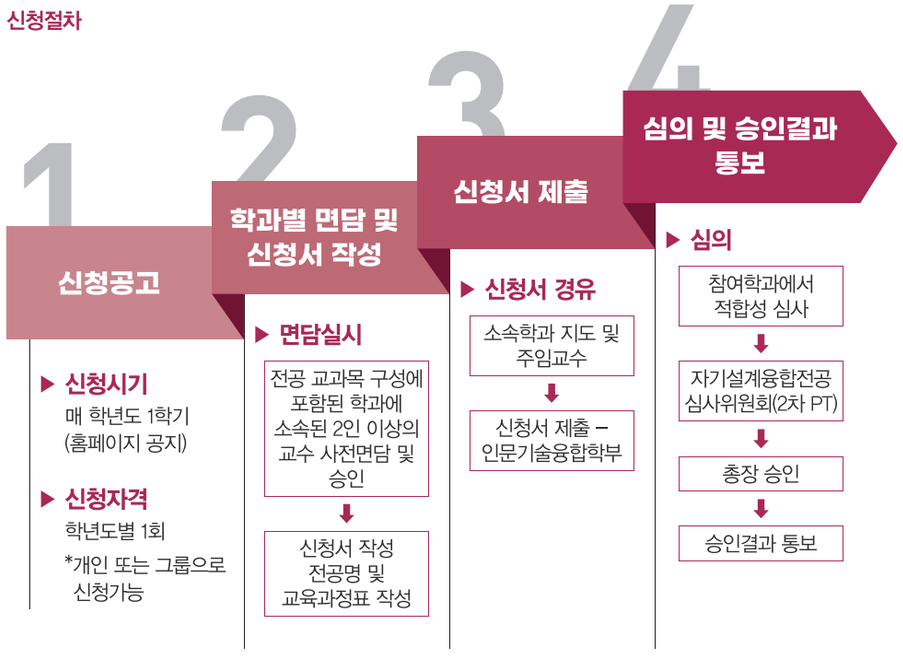
자기설계융합 전공이란? 01

학생 스스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수요자중심 교육과정으로써, 서로 다른 계열 2개 이상의 학과(전공) 교육과정 중 54학점 이상을 융합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을 구성(최저이수학점 : 36학점)

신청대상 3차~6차학기에 재학중인 개인 또는 그룹
※ 그룹은 관심분야 및 학과(전공)이 유사한 학생들(2~5명)로 구성

신청시기 매 학년도 1학기(자세한 내용은 학사공지 참조)

신청절차



유의사항
다전공 지원조건이 있는 학과를 자기설계융합전공 교육과정에 포함하고자 할 경우, 해당학과의 다전공 지원 조건을 충족한 학생에 한하여 자기설계융합전공 신청이 가능함.

다전공 지원조건 바로가기
https://www.kookmin.ac.kr/comm/menu/user/0d6f69373dd19f5c29bf96eae7bc01e1/content/index.do

자기설계융합 전공 – 승인현황 02

연계 · 융합전공명	참여학과	주관학과	학위	승인 연도	최저 이수 학점	부전공 최저 이수학점
과학기술사회학융합전공	나노전자물리+사회	사회학과	융합학사	2017	36	
금융공학융합전공	경영+재무금융+정보보안암호수학	경영학전공	융합학사	2018	36	
문화예술경영학융합전공	경영+음악학부+무용	경영학전공	융합학사	2018	36	
미술 · 디자인사학 융합전공	한국역사+회화+시각디자인+영상디자인	한국역사학과	융합학사	2018	36	
문화예술사회학 융합전공	국어국문+사회+회화+영화	사회학과	융합학사	2018	36	
미디어스포츠 마케팅융합전공	미디어+스포츠산업레저	미디어전공	융합학사	2018	36	
경제 · 수학융합전공	경제+정보보안암호수학	경제학과	융합학사	2019	36	
데이터사이언스 융합전공	AI빅데이터융합경영+소프트웨어학부	AI빅데이터 융합경영학과	융합학사	2019	36	
식품경영학융합전공	경영+식품영양	식품영양학과	융합학사	2019	36	
빅데이터 경제학	AI빅데이터융합경영+경제+정보보안암호수학	경제학과	융합학사	2022	36	

자기설계융합 전공 참여학과 (전공별) 최소 이수 학점 03

구분	자기설계융합전공	부전공
교과목 그룹 또는 참여학과(전공)가 2개일 경우	그룹별 12학점 이상	그룹별 6학점 이상
교과목 그룹 또는 참여학과(전공)가 3개일 경우	그룹별 9학점 이상	그룹별 3학점 이상
교과목 그룹 또는 참여학과(전공)가 4개일 경우	그룹별 6학점 이상	그룹별 3학점 이상

단과 대학별 계열분류 04

계열구분	단과대학
인문사회계열	글로벌인문 · 지역대학, 사회과학대학, 법과대학, 경상대학, 경영대학
공학계열	창의공과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자동차융합대학, 건축대학
자연과학계열	과학기술대학
예체능계열	예술대학, 조형대학, 체육대학

연계융합전공 이수 수기

자기설계융합을 통한 학습 효율성 제고

박 규 빈 | 17학번, 경제학과, 빅데이터경제학 융합전공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한국이 당면한 사회 문제들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경제 전문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빅데이터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데이터 과학은 경제 전문가에게 필수적인 역량으로 간주되었고 자연스럽게 데이터의 풍부함을 활용하여 경제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저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 지식뿐만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 과학 방법론과 이것의 근간이 되는 수학 등 기초 역량을 배양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정보보안암호수학과와 AI빅데이터융합경영학과에는 제 목표와 관련된 핵심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들이 개설되고 있었습니다. 두 전공을 통해 인공지능과 통계 그리고 경제학에 사용되는 수학과 방법론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AI빅데이터융합경영학과에서 개설되는 과목에서는 파이썬, R언어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 데이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프로젝트를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전공이 아닌 다른 전공의 수업을 수강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수의 학우분이 공유하는 경험과 마찬가지로, 저 또한 타 전공 학생으로서 원하는 전공과목을 신청하는 데 제약이 있어 수강신청에 실패하였습니다. 복수전공이라는 선택지는 흥미(진로)와 무관한 과목을 추가로 수강해야 하는 부담이 따랐기 때문에 선뜻 선택하기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탐색한 대안이 바로 인문기술융합학부의 자기설계융합전공이었습니다. 희망하는 분야에 특화된 커리큘럼을 효율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이 전공 제도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전공의 경우 학점을 채우기 위해 과목들을 들어야 해서 학습에 회의감과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융합전공의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은 자신에게 필요한 과목들로 설계되어 공부에 더욱 몰입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수강한 과목들을 통해 쌓은 경험들은 저만의 비전과 진로를 확실히 하게 해주었습니다. '다변량통계분석', '빅데이터처리와 시각화' 등의 수업에서 경험한 프로젝트는 연구에 대한 흥미와 적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대학원 진학을 결심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뚜렷해진 목표 속에서 지지치 않고 열정적으로 학업에 임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적장학금은 물론,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우수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인문 100년장학금을 수여받는 큰 행운을 얻기도 했습니다.

자기설계융합전공 제도를 이수하는 과정에서 교직원분들의 지원 덕분에 모든 과정을 어렵지 않게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전공 설계 단계에서는 경제학과, 정보보안암호수학과 그리고 AI빅데이터융합경영학과 교수님들이 교과과정에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 조언해 주시고 커리큘럼을 보완해 주셨습니다. 또한, 인문기술융합학부의 선생님께서 융합전공 설계뿐만 아니라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희망 분야가 명확한 국민대학교 학우분들 또한 교직원분들의 지원과 격려 속에서 자기설계융합전공을 성공적으로 이수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2024학년도 서울대 경제대학원에 합격하여 경제 문제들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자로 성장하기 위한 배움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설계융합전공 제도는 제 지속 가능한 성장에 중요한 밑거름이었다고 자부합니다. 향후 국민대학교 학우분들도 이 제도를 통해 새로운 도전과 발전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고민 중인 학우분들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연계융합전공 이수 수기

학문의 경계를 넘어: 역사, 미술, 디자인 그리고 교육까지

서 준 영 | 13학번, 한국역사학과, 미술 · 디자인사학융합전공



저는 "미술 · 디자인사학융합전공" 졸업생으로서, 자기설계융합전공이 어떻게 제 직업적 경로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전공을 처음 설계할 때 제 목표는 관련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학예사로서 근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가 걷고 있는 길은 그때의 계획과는 많이 다릅니다. 학예사가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공은 제 삶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과정과 이 전공이 가진 의미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왜 많은 학교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설계전공 제도를 운영할까요? 자기설계융합전공이 단순히 학문적 지식을 넓히는 것을 넘어, 다양한 분야를 연결하는 간학문적(Interdisciplinary) 통찰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학문의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으며, 학습자 개인에게는 자기주도적 경험을 통해 학습의 동기를 부여하고, 심도 있는 연구를 가능하게 합니다. 저 또한 자기설계융합전공을 통해 서울시립미술관 시민큐레이터 사업선정에 선정될 수 있었고, 한국디자인학회에서 디자인역사 연구 발표를 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학부생이 하기 쉽지 않은 것들이었지만, 제가 전공을 직접 만들고 탐색한 진정성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던 것이라 회고합니다.

졸업 후, 제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학원 진학이 무산되었지만, 이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급증한 온라인 교육의 수요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을 비롯한 주요 교육 기업에서 온라인 교육 서비스 및 콘텐츠 기획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대학에서 배운 간학문적 사고방식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기획자로서 디자이너와 개발자 간의 효율적인 협업을 이끌며 프로젝트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미술 · 디자인사학융합전공"을 통해 습득한 UI/UX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콘텐츠에 대한 이해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 기획에 있어서 강력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원래 학예사가 되기 위한 전공이었지만, 이러한 학문적 배경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기획하는 데 예상치 못한 큰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경험은 저를 새로운 학문적 탐구로 이끌었고, 현재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에듀테크 전공 석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석사 과정을 통해 교육과 기술의 교차점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으며, 학부 시절부터 시작된 간학문적 학문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 다음 목표는 미술사 관련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기획하는 것입니다. 역사, 예술, 디자인, 기술, 교육이 융합된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학부 시절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국민대학교 구성원들에게 저의 새로운 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렇듯 국민대학교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기설계융합전공을 통한 제 여정이 여러분에게도 영감을 주고, 여러분 자신의 길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계융합전공 이수 수기

'나'를 알아가는 기회와 시간, 문화예술경영학

김 하 린 | 18학번, 영화전공, 문화예술경영학융합전공



안녕하세요. 저는 CJ ENM 기획제작CP팀에 근무 중인 영화전공 18학번 김하린 입니다. 또한 문화예술경영 융합전공 복수전공을 이수하였습니다. 졸업 직후 CJ ENM으로 정식 입사하였고 방송국 내 프로그램의 촬영전 컨셉/출연진/자료조사 등 기획과 연출 관련일은 물론 전반적인 촬영현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저는 어릴 때 부터 막연히 영화감독이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치열한 입시 끝에 영화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입학과 동시에 학교 촬영 이외에도 외부 상업 현장을 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일찍 했습니다. 활동적이고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서 일하는 것을 좋아했던 저는 자발적으로 연출부, 제작부, 조명부, 미술부 등 여러 촬영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렇게 축적된 관련 경험은 제 시야를 넓혀 주었고 선택의 폭도 커지면서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더 뚜렷하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드라마, 방송 등 디지털 예술을 다루는 해당 분야에 있어서 그 첫 단추는 바로 '기획'입니다. 모든 것은 기획에서 부터 시작 됩니다.

주로 필드에서 현장 경험을 쌓던 제가 '예술기획'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사실 뚜렷한 사건으로 이뤄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 촬영장을 다닐 때 촬영현장에서만 일하는게 아니라, 촬영 전 준비하는 단계인 '기획'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누구를 캐스팅 할 것인지, 주요 관객 및 타겟은 누구로 왜 할 것이며, 어떤 의도나 메세지를 담을 것인지, 그 의도를 어떻게 연출할 것인지, 미술과 촬영장비 예산안 등. 어떤 독특한 소재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창의성'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작품에 더 이목을 끌것인지에 대한 '기획력'의 중요성을 점점 크게 느꼈습니다. 또한 그 '기획력'에 따라 결국 흥행이 좌지우지 된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심도 있게 배우고 싶다는 학구적인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 시기 복학하면서, 알찬 학교 생활을 보내기 위해 전전긍긍하던 때였습니다. 우연히 동기로부터 국민대학교 내 '문화예술경영'이라는 융합전공이 신설되었단 걸 지나가듯 들은 말이 불현듯 떠올랐죠. 하지만 신설인 탓에 학교 홈페이지, 커뮤니티, 지인 등 수소문을 했지만 해당 전공에 대해 할지 말지 결정할 만한 정보를 얻긴 어려웠습니다. 그리하여 맨땅에 헤딩하듯, 커리큘럼 중 당시 제일 흥미 있어 보이는 과목을 하나 골라 (기획서 작성 관련 수업) 교수님께 직접 연락드렸고, 그 수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문화예술경영학을 이수했습니다.

문화예술경영학 수업을 통해 느낀 점은, 이론 위주의 수업과 실습 위주의 수업이 뚜렷하게 나뉘어져 각각의 특성에 맞게 더 깊이 있고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점 입니다. 이론 위주의 수업들을 통해 기본기를 쌓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생각할 기회가 주어졌고, 실습 위주의 수업들은 A to Z 까지 직접 구현하면서 이론에서 배운 걸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넓은 시야로 생각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특히 교수님과 1:1 방식이 아니라 주로 많은 학우들 앞에서 보여주고 발표하면서 생각지 못한 신선하고 새로운 관점의 피드백을 통해 보완할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기획에 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위 과정들을 반복하며 자연스럽게 감각을 키워갔습니다.

끝으로, 학생 때 많은 도전과 경험 그리고 실패를 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에 대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어떨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지. 이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어떤 일을 해야할지, 어떻게 살아갈지 더 뚜렷하게 방향성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되어 주기도 하고요. 문화예술경영학이 저에게 그러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연계융합전공 이수 수기

예술과 경영의 융합으로 서서히 번져가는 미래

김 정 엽 | 16학번, 경영학부, 문화예술경영학융합전공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자기설계융합전공 – 문화예술경영학융합전공을 설계하고 이수한 김정엽 졸업생입니다. 이렇게 졸업 후에도 글로 저의 다소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게 되어 정말로 반갑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현재는 예술현장 곳곳에서 프리랜서 예술기획자로 혹은 예술경영 및 문화정책 연구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직후에는 대학원 과정을 통해 전공을 심화하고 공공 영역의 문화예술 지원기관 등에서 재직하며 제가 수학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더욱 성장시키고 배운 것들을 십분 활용하기도 했지만 고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배운 내용들을 모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도 물론 아니었고 배운 것이 터무니없이 부족하여 다시 공부하고 저의 한계와 약점을 직면하며 새로운 감각과 이해들을 차곡히 쌓기 위해 또 다른 도전과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전공을 더욱 깊이있게 공부해보기 위한 예술경영과 문화정책 등의 대학원 석박사 과정이었고 이론뿐만 아니라 현장을 오가며 실제적인 감각과 해당 분야의 무수히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한 재직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끔 유사한 분야에서 공부하고 활동을 시작한 후배나 동료들을 만날 때는 반드시 공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직장생활을 통해 이 분야의 생태계를 빠르게 파악해 보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비록 저의 일대기에 걸친 경험에서 비롯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다복잡한 예술생태계와 뚜렷한 정답이 있다고 감히 단언할 수 없는 해당분야의 특수성과 고유성 때문만이라도 저보다는 더욱 건강하고 분명한 고민을 해나갔으면 하는 작은 바람에 그렇게 말하고는 합니다.

해당 전공을 통해 무엇을 꿈꿀 수 있는지, 무엇이 될 수 있는지 아마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테고 이미 비슷한 고민을 했던 분들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벌써 어떠한 목표와 관심이 생겨서 도움을 얻고자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술경영이라는 학문은 사실 제가 융합하려고 시도하기 전에 이미 융합되어 존재했고 학제간에 걸쳐진 복합학적인 학문적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이전부터 현장과 학계에서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또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전공은 공연 및 전시 기획자를 양성하는 밑거름이 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예술과 경영이 만나 예술을 더욱 효과적으로 진작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하는 일련의 모든 직업군과도 연결될 수 있을 만큼 그 잠재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분야입니다. 혹은 제가 시도하는 것처럼 예술 및 문화정책 연구와 예술경영 자체의 학문적 특성을 탐색하려는 시도로써 해당 분야의 연구자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무엇이 될 수 있다기 보다는 무엇이 되려면 그 무엇도 꿈꿔낼 수 있는 분야라고 확신합니다. 예술을 사랑하고 경영학 방법론을 통해 이를 자신의 강점과 관심사로 잘 풀어낼 수만 있다면 아직 정의되지 않고 누구나 알고 있는 직무과 직업군이 아닌 자신만의 직업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학우들이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고 이와 관련된 직무를 하고 싶어서 해당 전공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러한 관심과 호기심으로 해당 학문을 배우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지만 예술과 경영에 갇혀서 순수하게 좋아하던 예술을 단순한 자본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직도 고민하고 제 분야에서 열심히 헤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아직 예술을 지긋지긋한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늘 새롭게 마주하는 감각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여러 일들을 동료들과 그리고 이 분야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기고 여행하고 있습니다. 학우 여러분들과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도 대학이라는 곳에서부터 자신의 행복한 삶의 시작이 출발되는 귀한 경험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연계융합전공 이수 수기

예술, 그중에서도 공연예술을 사랑했습니다.

김 민 지 | 19학번, 스포츠산업레저학과, 문화예술경영학융합전공



예술, 그 중에서도 특히나 공연예술을 사랑했습니다. 공연 관람은 제 오랜 취미이자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언제든 일상에서 도망칠 수 있는 도피처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예술을 통해 내가 먹고 살아야지, 관련 분야로 취직을 해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기회가 된다면, 언젠가, 정말 단순히 공부해 보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문화예술경영학융합전공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술경영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회사나 비즈니스의 경영과는 그 축을 완전히 달리하게 됩니다. 타겟층도, 마케팅 방식도 사고를 완전히 비틀어야 하는 경우가 더러 존재하며 늘상 예술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충돌하곤 합니다. 그 안에서 중심을 잡는 능력이 바로 예술경영인으로서 갖춰야 하는 자질 입니다.

이수하는 기간 동안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수없이 고민하고 또 주저했습니다. 편입생의 신분이었던 제가, 예술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본전공의 졸업 학점을 채우고 졸업 시험을 준비하기에도 충분히 벅찬 상황 속에서 순전히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한 부전공을 이어가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고민이 컸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경영학융합전공을 이수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술. 겉으로는 마냥 화려하고 거창해 보일 수 있는 분야이지만 그 안에서의 치열함을 배우고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분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힘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지. 앞서 언급했듯 취업이나 진로 설계를 위한 이수가 아닌 흥미에 이끌린 학문을 답습이 목표였으나 내가 이만큼의 애정을 갖고 있고 이만큼의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라면 이게 내 업이 되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예술경영학융합전공에서는 예술대학의 비실기 전공과 경영대학의 전공 수업을 주로 수강하게 되며, 이는 문화예술경영과 관련한 사고의 폭을 넓혀주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다가왔던 점은 수많은 예술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접하고, 사고하고, 예술을 사랑하는 학우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의견이 오가고 동시에 제 안에서 많은 것들이 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고 싶다는 다짐을 늘 했지만, 그 다짐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얻은 많은 것들에 동기 부여가 되었지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역시나 융합 전공을 함께 하는 학우들이었습니다. 융합 전공의 특성상 수강 신청이 쉽지 않고 타과생 딱지를 뗄레야 뗄 수 없을 뿐더러 여러 정보들에 접근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먼저 느낀 선배님들께서 함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작은 커뮤니티를 만들어주셨고, 그 안에서 서로 힘을 합치고 도와가며 무사히 융합 전공을 수학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에 있어 중요한 것들이 여럿 있지만 저는 그중에서도 기회를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그것을 잡는 사람과 잡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문화예술경영학융합전공을 이수하는 것은 실로 큰 기회였고, 그 기회를 잡았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에게는 이미 기회가 주어진 것이고, 그것을 그냥 흘려보낼 것인지, 잡을 것인지는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저는 문화예술경영학융합전공을 이수한 경험을 발판 삼아 현재 공연 제작사에 재직 중이며 공연 현장에서 제 열정을 쏟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앞으로 본인에게 주어질 다양한 기회들을 잡고, 본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얻어 앞으로 한 발짝 나아감을 직접 경험하시길 기원하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연계융합전공 이수 수기

융합전공을 통해 마케터의 길로

김 노 은 | 17학번, 중국정경전공, 식품경영학융합전공



안녕하세요, 17학번 중국정치경제학 전공 김노은이라고 합니다. 복수전공은 인문기술융합학부의 자기설계융합제도를 통해 '식품경영학융합전공'을 이수했습니다.

'식품경영학융합전공'은 식품영양학과와 경영학부 경영학전공의 커리큘럼을 취합하여 제안한 커리큘럼입니다. 항상 저는 식품회사 마케팅을 해 오고 싶었기에 타 학교의 외식경영학, 호텔경영학과들에서 계기를 얻어 1년 넘는 기간 동안 타과 교수님 면담 및 전공 제안을 위한 준비를 차례로 진행하는 등 사전 조사와 커리큘럼 취합 끝에 정식 전공으로의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주전공은 국제학이지만 졸업한 지금은 신입 마케터로서 사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학생 때 부단히 준비해 온 진로와는 다소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주니어 마케터로서 마케팅이라는 일에 큰 재미와 보람을 느끼고 업무를 습득해 가는 시기를 보내는 중입니다. 현재 저는 숙박/여행 어플리케이션 회사인 '여기어때컴퍼니'에서 퍼포먼스 마케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기반의 식품회사 마케터가 아닌 IT 기업의 퍼포먼스 마케터가 된 것인데요, 저도 학생 때는 마케팅이라는 직무 내에서 갈래가 얼마나 크게 나뉘겠냐는 생각으로 처음에 지금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었습니다. 요컨대 식품대기업 마케터로 입사하고자 스펙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회사에 들어왔다가, 같은 마케팅이어도 그 기업이 어떤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지, 이 제품의 성격. 마케팅 예산의 규모 등등에 따라 마케팅 전략과 수단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마케팅이어도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지금 와서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퍼포먼스마케팅이란 모바일 광고를 집행하고 이를 통해 성과(퍼포먼스)를 트래킹 및 측정하여 효율을 최적화해가는 마케팅입니다. 예컨대 식품회사가 파는 식품과 여기어때가 파는 숙소의 고객 리드타임은 매우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고객이 광고를 접한 후 구매를 결정하기까지 식품은 1~3일 이내의 시간이 걸린다면, 숙소의 경우 여행의 일부인 경우가 많아 같이 가는 일행의 일정이나 여행지 동선 등 고려할 사항이 많아 7일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 구매 시 발생하는 거래액도 크게 차이가 날 것이고, 이에 따라 같은 퍼포먼스마케팅이어도, 기업이 파는 제품에 따라 광고 채널이나 전략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기존 꿈과는 다르지만 이처럼 IT기업의 퍼포먼스마케팅은 정말 배울 내용이 너무나 많은 마케팅 신기술의 정수구나 느껴 현 회사에서 정착하여 노력하고 있는 병아리랍니다.

비록 예상치 못한 진로를 걷고 있긴 하나 마케터로서의 커리어 스타트를 복수전공을 하지 않았다면 더욱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식품경영융합전공을 이수하면서 경영학의 다양한 갈래 중 마케팅을 배울 수 있었고 마케터의 꿈을 키워나가며 현재 커리어를 마케터로서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자기설계융합전공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도전해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관심 있는 여러 전공을 배움으로써 가고 싶은 진로에 대한 생각이 폭이 넓어질 수 있고, 갈 수 있는 진로에 대한 전공 확장성이 대단히 넓어질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자기설계융합전공이 후배님들께 졸업 후 큰 힘이 되어 주리라 생각합니다.

연계융합전공 이수 수기

Why, 금융업 선택

조 현 영 | 18학번, 재무금융전공, 금융공학융합전공



안녕하세요. 저는 재무금융전공과 금융공학융합전공을 복수 전공한 18학번 졸업생 조현영 입니다. 저는 현재 23년 하반기 은행 신입 공채에 합격해 연수원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글을 읽을 국민대학교 연계융합, 자기설계융합전공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또 선택하게 될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저는 학교 입학 전 때부터 금융업에 종사하고 싶다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전공을 선택하고 관련된 자격증과 인턴십을 진행해 왔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인턴 하던 시절, 팀장님이 "CEO보다 더 많이 번 증권맨" 이라는 제목으로 SBS뉴스에 나와서 회사가 시끌벅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여의도에서 꽤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던 팀장님의 이야기가 궁금했던 전 '금융공학'을 기반으로 만든 파생상품을 통해 성과를 낸 것이 주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금융공학'이라는 학문에 대해 나름대로 찾아보고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찾아보던 중, '금융공학'이라는 전공이 타학교 및 대학원에서 구체적으로 교과과정을 갖추고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와중, 우리학교 인문기술융합학부에도 자기설계 융합전공의 형태로 금융공학전공을 이수할 수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디지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비대면 수요가 급증했고, IT 및 핀테크의 성장이 이제는 전통 금융업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자산운용사에서 인턴을 하며 퀀트 매니저님들과 관련 전공 석박사님들과 같이 일을 하며 많이 느꼈습니다. 자산운용업무와 더불어 사내 자회사에서 하는 로보어드바이저 업무를 경험하며 앞선 생각들이 이뤄지는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공학전공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커졌습니다. 이후, 학교에서 금융공학 융합전공을 복수전공하고자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업에서 먼저 실무를 경험하고, 전공을 선택하고 공부하다 보니 아쉬운 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설계 융합전공의 경우, 먼저 설계한 전공의 학생의 커리큘럼을 따라야하는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한 학생의 니즈에 맞춰져 있어, 중복되는 과목과 무관한 과목들이 여럿 배치돼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필수전공이 중복 12학점 인정되는 제도의 경우 예시로 재무금융전공학생의 경우 경영학 전공 학생보다 과목을 더 들어야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강신청 시 타학부의 과목들과 시간표가 겹쳐 듣기 어렵기도하고, 잘못하면 추가학기까지 들어야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를 통해 저와 함께 전공하려던 학생들은 중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고자, 인문기술융합학부에서 매년 개최하는 '내가 만드는 연계융합전공 교육과정 공모전'에 같이 전공하는 후배와 같이 참여했습니다. 저의 문제 인식과 현업자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새로운 교과과정을 제안했고 21년 공모전 당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교과과정 개편이 매년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 저는 제가 제안한 내용의 수혜는 얻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최근 개편논의 때 제 자료나 의견을 전달한다고 해주셔서 이 글을 읽고 전공을 이수할 후배들은 수혜를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증권사, 자산운용사 인턴을 거쳐 은행에 입행하는 아이러니한 과정을 거쳤지만, 그만큼 금융공학이 도움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수업을 들으며 시험과목이 겹쳐서 학기 중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을 병행해서 공부하기도 했고, 데이터 관련 IT 아카데미에 면접을 볼 때 전공을 어필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 몇몇 금융사들은 채용 시 금융공학전공자들을 우대사항에 적어놓은 만큼, 금융권을 준비한다면 엄청난 베네핏은 아니지만 분명 플러스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무금융전공에서 배우는 파생상품에 대해 조금 더 심화해서 배우고 데이터 분석 역량을 더 키우는 데 관심이 있다면 '금융공학융합전공'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향후 어떤 금융회사에 지원하더라도 역량을 증가 시키는데 있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VENT 주요행사

연계/융합전공 · 자기설계융합전공 온라인설명회

설명회 개최를 통해 학생들의 다(부)전공 로드맵을 안내하여 연계융합 전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자기설계융합전공 신청

학생 스스로 본교에 개설된 2개 이상의 다른계열의 학과 교육과정을 융합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을 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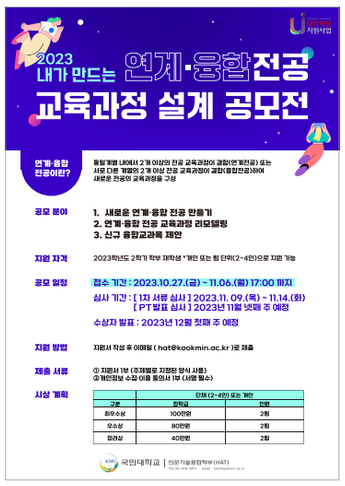
오픈융합강좌DAY

'융합'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전공영역을 오픈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강좌를 자유롭게 수강할수 있도록 함.



내가 만드는 연계융합전공 교육과정 설계 공모

연계 · 융합전공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를 상승시키고 자기설계융합전공 신청으로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함.



나는 **국민**인
국민의 **미래**를 연다!

대학혁신지원사업

경계를 뛰어넘는 TEAM형 실용융합인재 양성

인문기술융합학부 (HAT)

02707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77 북악관 801호

TEL 02-910-6477 **WEBSITE** https://hat.kookmin.ac.kr